# 조선 빅3, '피크아웃' 대비 방산·해양·AI 엔진 사업 확대

**LNG 운반선 호황에 역대급 실적**
**내년 이후 추가 개선 여력 제한적**
**특수선·방산 성과… MRO 선점 치열**
**해양플랜트, 선별 수주 중심 활기**
**AIDC 전력난 겨냥 중속엔진 속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대형가스운반선. /삼성중공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방산·해양플랜트·AI 데이터센터용 엔진 등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황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슈퍼사이클 종료 후 겪었던 장기 불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증권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이후 LNG선 발주 물량과 선가의 추가 개선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올해 글로벌 LNG 운반선 인도량이 사상 최대 수준인 90~1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LNG선 공급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조선 빅3 수주잔고의 상당 부분(약 70척)을 차지하는 카타르 LNG 확장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운임 하락과 발주 둔화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장의 지표는 견고하다. 최근 신조선가지수는 184.37포인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조선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도 199억6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주액 163억7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업계는 과거 장기 불황과 구조조정의 기억을 의식해 호황기에도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는 특수선과 방산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스웨덴 해사청으로부터 3억4890만 달러 규모 전기추진 쇄빙선을 수주하며 유럽 중심 시장에 진입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과 협력해 미 해군 함정 정비·모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시장조사기관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80조원에서 2029년 약 8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세사르 차베즈'와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 정비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한화오션도 올해 미 해군 MRO 사업 2건을 따냈으며,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시장도 선별 수주를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텔핀 FLNG 추가 수주를 추진 중이고, 한화오션은 싱가포르 해양 상부구조물 업체 인수를 통해 오는 2027년 이후 '2년마다 FPSO 3기' 건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도 올해 1분기 해양 부문 영업이익이 8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2%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난을 겨냥한 중속엔진도 새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 전력 인프라 기업과 6271억원 규모의 '힘센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텍사스 데이터센터용 엔진 장기 MRO 계약을 확보했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업은 사이클 변동성이 큰 만큼 호황기에 불황을 버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조선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MRO 사업이나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 유통업계, 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1번점' 선점 속도

**백화점, 지방 점포 확장 가장 적극적**
**뷰티·패션, 핵심상권 대형매장 출점**
**외국인 관광객 관광지역 다변화 영향**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중심이던 유통업계의 투자 축이 지방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백화점과 H&B, 패션 플랫폼 업계까지 부산·광주·제주·경주 등 주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점과 리뉴얼 경쟁에 나서며 '지역 1번점'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방 관광 활성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점포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들은 비수도권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대형 점포 출점과 리뉴얼, 복합쇼핑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수도권 중심이던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랜드마크 점포를 통한 관광·체험형 소비 수요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 점포 확장을 이어가는 곳은 백화점 업계다. 이미 주요 점포별 매출액 순위에서 지난해 신세계 센텀시티점(3위), 현대 백화점 판교점(5위), 신세계 대구점(6위)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백화점 빅3는 '랜드마크형 복합공간' 조성과 지역 밀착형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부산 센텀시티점과 대구점을 앞세워 지역 대표 점포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부산과 경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더현대 광주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비수도권 유통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방 점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리뉴얼을 마친 인천점은 프리미엄 콘텐츠 확대를 기반으로 수도권 서부 핵심 점포 도약을 추진 중이다.

뷰티와 패션 플랫폼 업계도 지방 상권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CJ올리브영은 올해 비수도권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핵심 상권 중심의 대형 매장 출점에 나선다. 부산·제주·경주 등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특화 매장을, 충청·호남·영남권에는 체험형 대형 매장을 구축해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신사 스탠다드 역시 오프라인 접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에 호남권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제주점 출점을 추진하며 비수도권 소비자 접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업계의 지방 점포 확장 흐름을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와 관광지역 다변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분기 최대 규모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중심 관광에서 지방 관광으로 확대 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34.5%로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액도 23.0% 증가한 3조 2128억원을 썼다.

특히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부산의 경우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2만3946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명을 돌파한 기록이다. 지난해 4월 세웠던 기존 최단 기록도 한 달 앞당겼다.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내수시장에서 외국인 카드 사용액 비중은 3.0%를 상회한다"면서 "향후 외국인 매출 비중이 상승하며 내수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 세금 보조 받으며 6년간 밀가루 담합 '적발'

**공정위, 7개 제분사에 6710억 과징금**

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국내 밀가루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라면·국수·과자 등을 만드는 대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합의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이어졌으며, 담합 건 관련 매출액은 총 5조 6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7개 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점유율 87.7%(2024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로, 조사 결과 담합 기간 중 대표자 및 실무자급 회합을 총 55회나 가지며 2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2020~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반대로 원맥 시세 하락기(2023년 이후)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

실제로 농심이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이들은 회합을 통해 최소 폭만 인하하기로 합의해 대응했다.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인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대표 품목인 중력분의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보다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폭등했으며, 제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충북·경기 등 반도체 생산기지 실적 급증

**데이터처 '1분기 지역경제동향'**
**광공업생산 증가율 전국 최고**

올해 각 지역 경제는 반도체 생산기지 보유 여부에 실적이 좌우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경우, 올해 1분기 광공업생산 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28.4%나 뛰었다. 대기업 반도체 제조시설이 충북 청주에 들어서 있다.

반도체·전자부품이 무려 85.8% 늘었고, 전기장비(72.2%)와 기계장비(22.8%) 생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최고의 광공업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 전체로는 1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충북(28.4%)과 함께 울산(5.5%), 대구(5.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전북(-5.8%), 인천(-5.4%), 부산(-4.5%) 등에서는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지역이 수출 강세를 보였다.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외 비교해 606억 달러 늘었는데 경기(284억1000만 달러), 충남(204억8000만 달러), 충북(33억9000만 달러) 등으로 증가 폭이 컸다.

경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다. 충남 지역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거점 및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매·소매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서울(8.7%), 대전(5.3%), 울산(5.0%) 등은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